

## 생생리포트

### ■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박지윤(연구원·jiyoon@sdi.re.kr)

박희석(연구위원·hspark@sdi.re.kr)

-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생산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벗어나 문화도시, 창조도시 논의와 같은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도시가 지닌 유형의 생산기반과 더불어 이를 고도화시키고 촉진화시킬 수 있는 무형의 생산기반인 문화적 여건에 주목하게 됨
-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도시의 어매니티(amenity) 향상을 통해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되어 옴
- 도시의 어매니티(amenity)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으나, 특히 도시 공원의 양적·질적 현황은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과거 공원은 단순히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이었으나, 새로운 도시경쟁력에 대한 접근에 따라 여가 공간을 넘어서 도시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자 도시의 전체적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본 의견조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세계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서울시 공원의 경쟁력과 이용실태 및 개선수요를 파악하고자 기획됨
-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공원 관련 정책 및 도시의 어매니티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본 조사는 I. 서울시 공원 현황, II. 전문가 심층의견조사, III. 시민의견조사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시민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신 25개 구청 온라인 설문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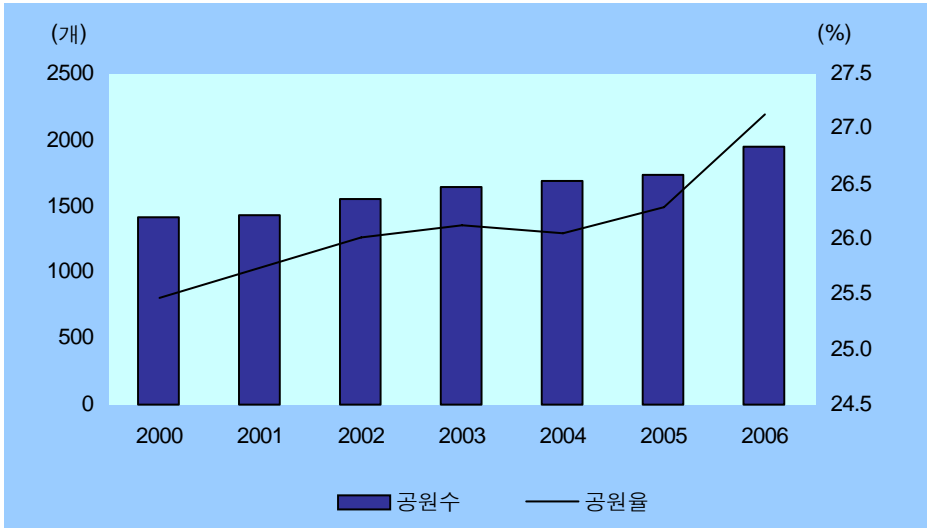
### 1. 서울시 공원 현황

- 2006년 현재 서울시의 공원수는 1,953개, 면적은 164.22km<sup>2</sup>(미조성분 포함)로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605.40km<sup>2</sup>) 면적 대비 공원 면적인 공원은 27.1km<sup>2</sup>임
- 1인당 공원 면적은 15.95m<sup>2</sup>(2005년: 15.65m<sup>2</sup>)이며,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5.19m<sup>2</sup>임
- 2005년 기준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세계주요도시와 비교해보면 런던(24.15m<sup>2</sup>) 및 뉴욕(10.27m<sup>2</sup>), 파리(10.35m<sup>2</sup>)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공원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면적의 61.3%는 도시공원이며, 10.9%는 유원지, 강변공원, 올림픽 공원 등과 같은 기타 공원임
- 공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중에서는 어린이 공원, 기타공원 중에서는 마을마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중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기타공원 중에서는 강변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2006년 서울시 공원 현황

	계획		조성		미조성	
	공원수	면적	공원수	면적	공원수	면적
합계	1,953	164.22	1,755	141.80	198	22.43
도시공원	1,480	108.65	1,294	86.87	186	21.78
도시자연공원	20	66.70	11	51.77	9	14.93
근린공원	306	37.12	222	30.61	84	6.51
어린이공원	1,147	1.71	1,056	1.52	91	0.19
체육공원	2	0.05	1	0.03	1	0.02
묘지공원	5	3.07	4	2.94	1	0.13
기타공원	472	16.12	460	15.48	12	0.65
유원지	4	0.64	-	-	4	0.64
강변공원 (한강변,지천변)	46	11.46	46	11.46	-	-
마을마당	283	0.15	281	0.15	2	0.00
올림픽공원	1	1.45	1	1.45	-	-
기 타(월드컵공원,용산공원 소공원, 문화마당, 광장 등)	138	2.42	132	2.42	6	0.01
자연공원	1	39.45	1	39.45	-	-

출처: 서울시, 푸른도시국



출처: 서울시(2006), 공원현황

〈그림 1〉 2000년 이후 공원수 및 공원율

- 2000년 서울시 전체 공원수는 1,437개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00년 대비 37.2% 증가한 1,953개임
- 공원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는 전년에 비해 122개 증가함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함
-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는 월드컵, 선유도, 2003년도에는 추모공원, 오동공원, 우이동 유원지, 2005년도 서울숲, 넘은들공원, 2006년도에는 청계천 등 강변공원이 조성됨
- 서울시 공원율은 2000년 25.47%에서 2006년 27.13%로 1.7%p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05년 대비 2006년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공원수의 경우 12.5% 증가하였으며, 공원율은 0.83%p 증가함
- 2005년에 비해 공원면적은 청계천, 탄천 등 강변공원의 조성으로 3.1% 증가하였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1.9%,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8.8% 증가하여 생활권 공원면적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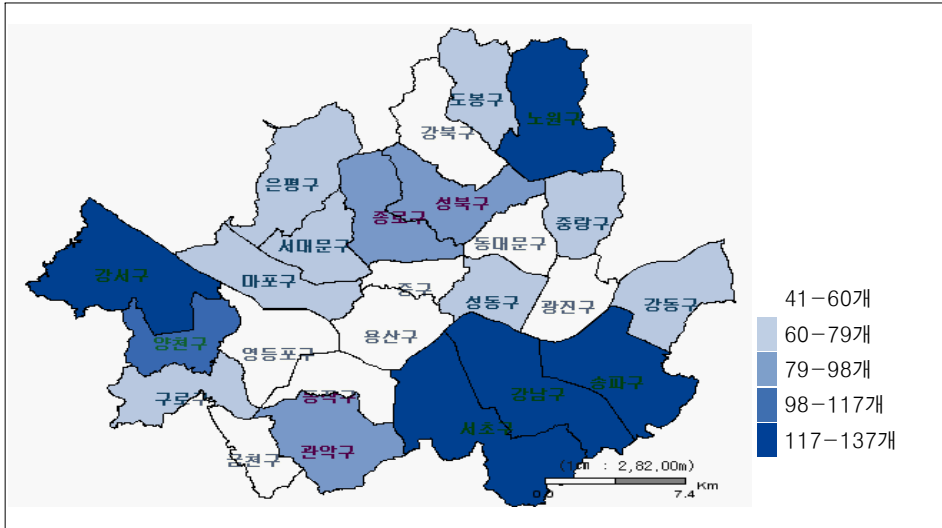
〈표 2〉 자치구별 공원 면적(2006년 기준)

구	전체공원면적 (km <sup>2</sup> )	도시공원면적 (km <sup>2</sup> )	1인당공원면적 (m <sup>2</sup> )	생활권공원면적 (m <sup>2</sup> )
강남구	5.65	4.63	10.31	6.19
강동구	2.78	1.95	5.95	4.55
강북구	14.29	1.55	40.21	4.54
강서구	3.37	2.64	6.05	6.05
관악구	10.77	10.76	20.04	2.41
광진구	3.35	2.91	8.81	3.23
구로구	2.93	2.60	6.85	3.22
금천구	2.18	2.02	8.25	1.44
노원구	14.06	13.78	22.50	4.79
도봉구	10.44	1.05	27.22	3.25
동대문구	1.12	0.88	2.90	2.90
동작구	3.91	3.73	9.44	4.39
마포구	4.89	2.03	12.44	12.40
서대문구	5.39	4.74	15.15	5.47
서초구	<b>15.71</b>	<b>14.92</b>	38.62	8.85
성동구	2.80	0.79	8.16	8.16
성북구	7.62	3.92	16.30	3.72
송파구	4.53	1.92	7.42	7.42
양천구	2.63	2.22	5.24	3.41
영등포구	2.06	0.62	4.90	4.90
용산구	2.48	1.86	10.35	5.09
은평구	14.66	5.20	30.97	4.56
종로구	10.64	6.19	<b>61.17</b>	<b>16.52</b>
중구	1.89	1.84	14.04	3.60
중랑구	4.91	4.74	11.42	3.49

자료: 서울시(2006) 공원현황

## 2. 자치구별 공원 현황

- 우선 공원면적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체공원면적의 경우 서초구에서 15.71km<sup>2</su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종로구, 도봉구순임
- 전체공원면적에 있어서는 자연공원이 위치한 구에서 면적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도시공원면적의 경우 전체공원면적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1인당공원면적의 경우 종로구가 61.17m<sup>2</sup>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 서초구, 은평구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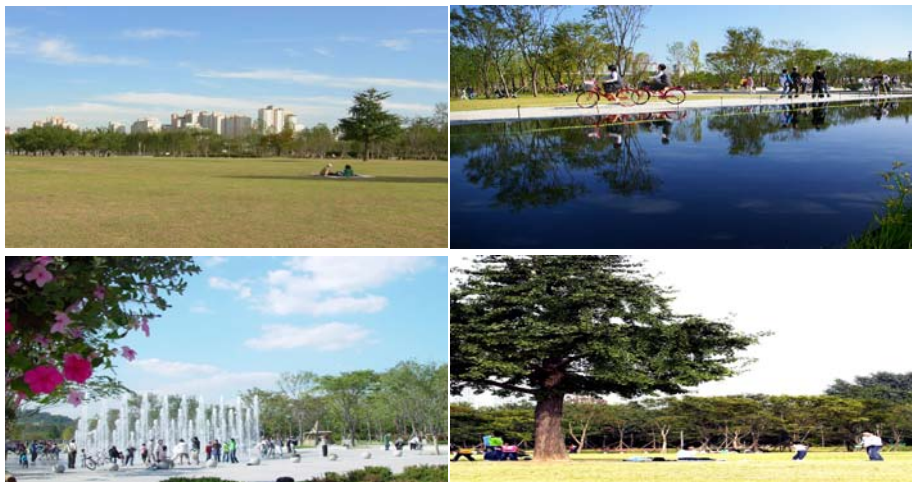
출처: <http://gis.seoul.go.kr>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분포 현황

- 생활권 공원면적의 경우 종로구가 가장 넓으며, 이어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순임
- 자치구별 공원률을 살펴보면 강북구(60.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도봉구 (50.17%), 종로구(44.48%), 노원구(39.69%), 관악구(36.41%), 서초구(33.41%), 성북구 (31.01%), 서대문구(30.63%)의 순임
- 공원면적과 마찬가지로 북한산, 도봉산 등의 자연공원이 위치해 있는 구에서 공원율이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공원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구가 41개로 가장 적으며, 노원구가 137개로 가장 많음
- 이어 강서구(134개), 서초구(132개), 송파구(126개), 강남구(123개), 양천구(106개)는 공원수가 100개를 넘어섬
- 반면 중구, 금천구, 용산구는 60개소 미만으로 공원수가 많은 노원구의 1/2에도 미치지 못함
- 각 자치구마다 공원수에 있어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하며, 이것은 자치구별로 주민의 공원 접근성에 지역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3. 서울숲과 월드컵 공원

-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 조성된 시민공원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숲과 월드컵공원을 사례로 살펴봄
- 골프장과 승마장으로 이용했던 성동구 성수동 뚝섬 지역을 2005년 6월 생태숲인 ‘서울숲’ 공원으로 재단장하여 개장함
- 약 35만평 면적으로 문화예술공원(220,000㎡), 자연생태숲(165,000㎡), 자연체험학습원(85,000㎡), 습지생태원(70,000㎡), 한강수변공원(66,000㎡) 등 5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됨
- 주요시설로는 야외무대(4,000㎡), 서울숲광장(6,900㎡), 환경놀이터(3,000㎡),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벤트마당, 나비온실 등이 있음



출처: <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그림 3> 서울 숲 조성현황과 실제 전경

2) 월드컵 공원

- 2002년 5월 1일 개원한 월드컵 공원은 새천년 공원개발의 모델로서 버려진 땅 난지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설됨
- 여의도공원의 15배,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105만평의 크기로 조성된 친환경공원인 월드컵공원은 크게 평화의 공원(135천평), 난지한강공원(235천평), 노을공원(103천평) 난지천 공원(89천평), 하늘공원(58천평)으로 구성됨
- 2004년 기준 995만 4천명이 방문하였음(월드컵공원 홈페이지)



출처: <http://worldcuppark.seoul.go.kr>

<그림 4> 월드컵 공원 조성현황과 실제 전경



## II. 전문가 심층의견조사

대상: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박인규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공원과 과장)

기간: 2007년 3월 20일 - 3월 28일

### 1. 우리의 경제규모, 삶의 패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어 떤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식 교수** 서울시의 1인당 공원면적(약 15평방m)을 선진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근린공원의 공간적 분포, 특히 도심지와 부도심 등에서의 공원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선호시설로 볼 수 있는 공 원은 거리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거주지 주변에 공원이 중복되나 어떤 지역은 부재한 실정이다.

▶ **성종상 교수** 서울의 공원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지만 우리의 경제규모, 삶의 패턴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원녹지 총량과 관련하여 종 종 지적되는 사실로서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에 미달한 상태라는 점은 서 울시 공원녹지의 양적문제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근린공원은 이런 양적 문제 에다 몇 가지 질적인 문제가 더해져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공원의 양적 부족 문제는 서울의 자연조건과 우리 정서를 고려하면 덜 심각한 것 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시 안팎에는 크고 작은 산과 하천이 있는데, 서구인과 달 리 일상 삶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해온 한국인에게 산과 물은 이미 훌륭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서구인들이 산수유람을 즐기며 수많은 시 와 노래와 그림을 남기곤 하는 조선인의 특별한 취향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고 있 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국 한국인에게는 잘 만들어진 도시공원 못지 않게 가까이 있어 찾아 즐길 수 있는 산과 강이 좋은 공원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서울시 공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적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질 적 문제의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접근성이나 이용 가능

성, 편의성 또는 안정성 등의 이른바 공원의 실효적 이용과 관련되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원이 과연 동시대 현대도시인의 삶을 잘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공원에 담긴 의미 또는 표방하는 가치에 대한 차원이다.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거나(한강으로의 시민 보행접근 어려움 문제는 그 대표적인 문제이다), 비슷한 시설의 단순 나열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원 이용자의 불만이 종종 제기된다라는 사실은 전자의 문제를 잘 알려주는 현주소이다. 그에 반해 공원의 도시사회 속 의미나 표방 가치 등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도시 속 공원녹지의 기능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시되는 현 시점에서 공원이 어떠한 의미를 담아야 하고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들의 가치관과 관심, 그리고 생활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고 그에 따라 상업적 서비스는 물론 모든 문화상품 조차 빠르게 변화하고 다르게 소비되는 현 시점에서 공원이라고 예전의 정태적인 모습만을 고집해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타입의 공원이 모색되어야 할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박인규 과장** 그간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건강은 뒤로한 채 온 정열을 다해 가정과 직장만을 위해 전력 질주 해 왔고, 그 결과 우리사회는 지속적이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내 선진국 반열 진입이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주5일 근무제도가 확산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웰빙의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공원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실례로 지난 5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65%는 한달에 한번 이상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책과 휴식, 운동을 위해 공원을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집 주변 소규모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비율이 높았지만 노후시설과 공원이용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한 불만요인이 많아 공원의 hardware 측면과 software 측면 모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우리시에서 펼친 공원녹지 정책은 공원의 양적인 확충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기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 리뉴얼사업,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 등 굵직굵

직한 사업에서부터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 그리고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공급자위주의 공원정책에서 탈피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공원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57%는 생활주변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서는 기존 근린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양적인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공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 2.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 측면에서 향후 근린공원의 개선점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세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식 교수** 서울시의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의 비중이 높고 주로 노원, 종로, 도봉, 관악구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의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 그러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근린공원은 도시의 쾌적성을 나타내는 도시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서비스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근린공원의 공간분포는 파편적으로 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 체계적으로 공원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종상 교수** 위에서 말한 현대 도시공원의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향후 공원은 현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읽어서 이것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단정적이고 특정의 시선이나 가치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대 도시인의 삶과 역동적으로 만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호교호적인 활동들이 요구된다. 의식적으로 좋은 것이라 훈련받은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공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고유가치, 고유한 미감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공원설계에 있어서 우리 국토나 정서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현대 사회에서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상화되거나 때로는 조작되어진 자연을 도시 속에 재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 도시공원이 과연 우리 고유의 자연미학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질문이다. 비록 공원이란 것이 수입품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산천을 즐기던 문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의 자연관, 미적 태도, 감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사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급격한 국제화 속에서 지역 고유의 특질을 보전함으로써 정체성을 찾으려는 포스트모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우리 것을 고민하고 찾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서울시 공원 중에서 쌈지공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공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특히 지역의 삶, 장소의 삶에 주목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록 결과물로서의 설계안이나 조성된 모습이 장소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름이나 설계안에서 그 지역의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여타의 수많은 다른 공원들이 장소의 삶이나 우리 고유의 서정과는 대체로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현상에서 그 같은 노력은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삶의 패턴을 고려할 때 현대도시, 포스트모던 도시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공원이란 물리적 공간이 잘 반영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건축물이 시대정신을 발현하고 그 결과로서 특정의 양식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공원 또한 동시대적 가치나 사조를 잘 담아내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 이들은 개성, 독창성, 자유분방함 등을 공원에서 발휘하려 하지만 우리 공원들은 대체로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이유로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 나는 선유도 공원의 녹색 기둥의 중정에서 발견되는 코스프레족들의 문화를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시사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것은 도시인의 삶의 패턴, 문화적 취향이 달라짐으로써 드러나는 공원의 새로운 모습의 한 단면일 것이며, 역으로 공원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음을 반영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이 같은 공원의 능동적인 역할과 효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식을 갖춘 리더와 그와 궤를 같이하는 사회적 요구라는 공원 외부로부터의 요건과 함께, 계획 및 설계자들의 전문가로서의 앞선 식견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미 공원은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전문가들보다는 정치인 등 비전문가들의 가치관과 의도가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이다. 공원이나 정원을 문화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다듬어가려 하기보다는 대중적인 취향이나 정치적 의도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원이라고 하면 숲과 잔디밭을 떠올릴 정도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공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선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대체로 그 가치는 ‘푸른 자연은 무조건 좋은 거’ 이라는 거나, ‘공원에는 큰 나무, 커다란 숲이 있어야 된다’ 는 식이다. ‘녹색 제일주의’ 또는 ‘대형목 신드롬’ 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같은 현상은 극복되어야만 한다. 너무 특정의 가치만 고집하거나 얽매는 것은 다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공원을 출현시키고 있는 외국 선진도시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라 빌레트 공원의 경우 기존의 숲, 잔디밭으로 가득 찬 자연 풍경식 공원을 탈피하여 음악 도시, 산업도시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활동까지 포용함으로써 20세기의 공원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성과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리더와 함께 사회로부터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좋은 것이라고 훈련받은 프로그램을 천편일률적으로 집어넣기 보다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 기존에 있거나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공원이라는 그릇에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설계자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도록 사회적인 요구와 리더가 필요하다. 즉 보다 발전적인 공원의 모습을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환경과 함께 조경가들의 시대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다.

▶ **박인규 과장** 굳이 도시공원 법률상 정의나 사전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원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하며, 최근 조성이 완료된 서울숲을 보더라도 “공원” 이라는 공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구조 변화와 국민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공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공급자인 우리시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로서 과거처럼 공급자 위주의 공원운영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수요자중심으로 가기 위해 공원이용 행태분석과 수요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feedback 시스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우선적으로는 공원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기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 직영공원에 한정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자치구 근린공원에도 확산시켜 다양한 계층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서울숲이나 월드컵공원, 길동생태공원 등 일부 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원이용프

로그램도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공원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가족단위 이용자들을 위한 온가족 친밀도모 프로그램, 신체·정신허약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등 기존 환경프로그램이나 교육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원내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면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제공하여 공원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에서 지역민들의 소통의場이자 문화공간의 중심지로 그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 3. 근린공원의 활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식 교수** 공원관련 정책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에 보다 정책적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및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먼저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린공원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원의 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원과 교통체계와의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근린공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원을 방문하기보다는 도보나 대중교통 등 이용해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린공원 서비스의 부재지역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먼저 거주지 주변의 근린공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파악한 후, 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근린 공원내 불필요한 시설 설치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을 줄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공원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근린공원 서비스 향유에 대한 공간적, 계층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이다.

▶ **성종상 교수**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자 입장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에게 개방하거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다양한 시선과 새

로운 시도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현대도시의 산업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토지이용이나 용도들이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재정비해 나가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급격한 도시 물적 구조상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도심 활동을 주도하던 중공업 위주의 산업활동이 쇠퇴하고, IT산업을 위시한 지식과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산업설비와 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그들 이적지를 공원녹지로 확보하여 새로운 도시 재생과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많은 외국 선진 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서울시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박인규 과장** 우리시에서는 공원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관리상황 등 전반적인 공원운영·관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고객이 더욱 행복해지는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코자 매년 1회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도 공원이용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공원이용 시민들은 공원접근 편의성에는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공원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나 이용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공급자 위주의 공원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공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가 저하하였는데, 이는 시설노후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공원시설 개선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더 편리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공원은 그 자체만으로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원운영은 물론 관리와 이용 등 전반에 걸친 진단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원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시민들 자신이다. 때문에 공원이용은 물론, 공원관리와 운영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데, 멀리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 2005년 개장한 서울숲의 서울숲사랑모임이나 자연생태공원으로 잘 알려진 길동공원의 길동지기의 사례와 같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원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 III. 시민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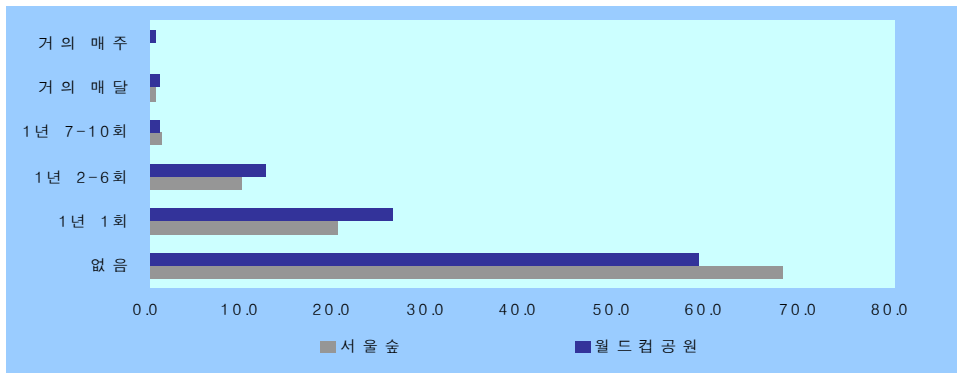
대상: 서울시민

방법: 각 구청 홈페이지 및 연구원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sup>1)</sup>  
 (<http://www.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7-9-213>)

기간: 2007년 3월 20일 -3월 30일

2000년 이후에 조성된 대표적인 공원인 서울숲, 월드컵 공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1명이 응답하였다<sup>2)</sup>. 각각의 공원에 대해 방문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숲의 경우 응답자의 68.0%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월드컵 공원은 58.9%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두 공원 모두 1년에 7회 이상 방문한 비율은 2-3%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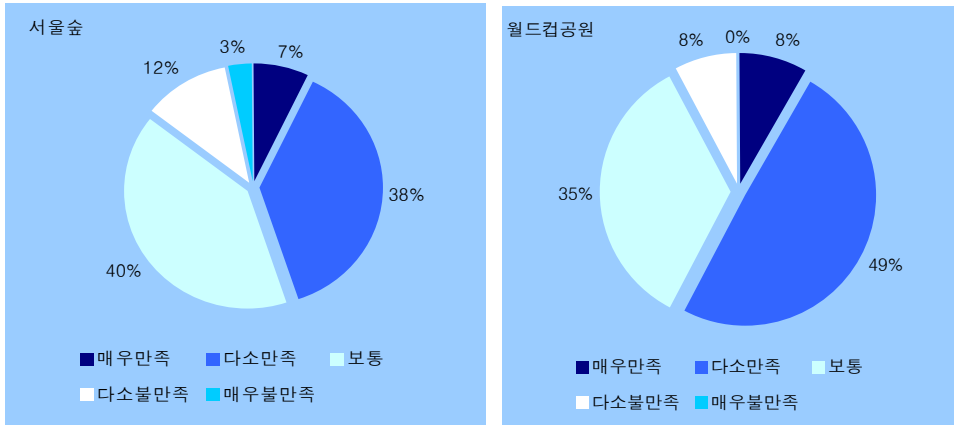
서울숲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방문한 응답자의 44.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월드컵 공원의 경우 방문자의 57.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서울숲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공원 방문빈도

- 1) 온라인조사의 경우 실제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표본추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사의 경우 조사된 응답자 특성이 서울시 전체인구 특성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므로 표본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 2)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근린공원에 대한 질문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본 호에서는 서울숲과 월드컵 공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만 게재하기로 한다.





〈그림 2〉 전반적인 만족도

구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서울숲의 경우 공원규모, 산책로, 호수변 등 자연휴양시설등의 항목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공원의 대기질, 일조량 및 녹지량, 휴식장소로서의 적합성, 전반적인 공원분위기는 4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광장, 야외공연장 등 공공시설,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 시설 및 공간배치의 효율성, 참여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은 3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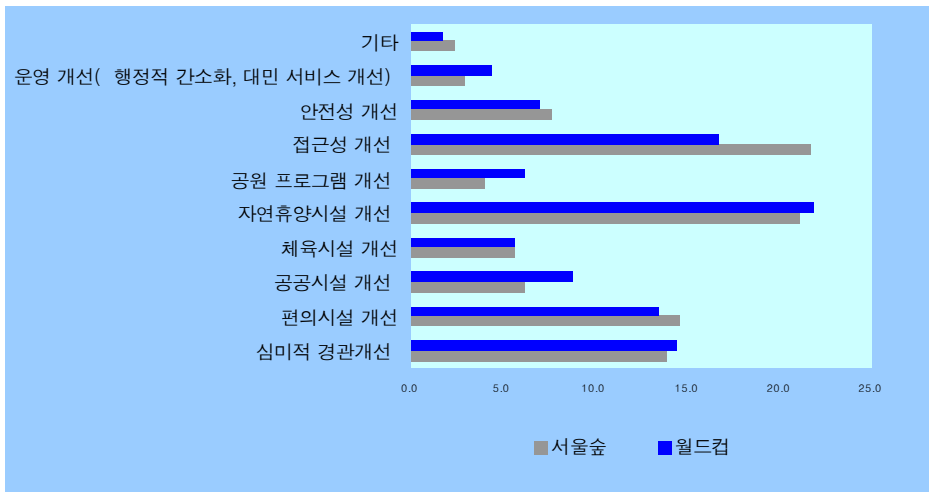
반면 공원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15.0%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1.1%는 보통, 43.2%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공원으로의 접근 편리성의 경우 20.1% 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8.8%는 보통, 38.1%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며, 불만족스러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차시설의 경우 16.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3%는 보통, 39.0%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예약, 사용에 대한 행정 절차의 경우 1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2.7%는 보통, 14.7%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보통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드컵 공원의 경우 공원규모, 산책로, 호수변 등 자연휴양시설, 수목, 조형물 등 아름다운 주위경관, 공원의 대기질, 일조량 및 녹지량, 주변 경관과의 조화, 휴식장소로서의 적합성, 전반적인 공원 분위기 등의 항목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광장, 야외공연장 등 공공시설, 친목장소로서의 적합성, 사색장소로서의 적합성은 응답자의 4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주차시설, 운동장, 트랙 등 운동 시설, 시설 및 공간배치의 효율성, 청소 등의 시설관리상태, 공원내 치안 및 안전성, 참여공간으로서의 적합성, 공원으로의 접근 편리성은 3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공원접근성과 공원과의 거리는 15.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6.4%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예약, 사용에 대한 행정절차는 19.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8.9%는 보통, 12.5%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공원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서울숲의 경우 산책로 등 자연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자연휴양시설개선이 가장 보완될 측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수목, 조형물 등의 확충, 재배치 등을 통한 공원 경관 개선, 안내 게시물, 화장실, 매점 등의 편의 시설 확충이나 운영 개선, 치안 및 안전성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드컵 공원의 경우 서울숲과 마찬가지로 자연휴양시설 개선이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응답하였으며, 이어 공원인접버스노선 증편이나 진입보도 개선, 공원경관개선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서울숲과 월드컵 공원에 있어 설문에 응답한 시민의 50% 미만이 방문했다고 응답하였으나, 방문한 경우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공원 모두 규모 및 자연휴양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이어 각종 시설이나 휴식 및 산책 장소로서의 적합성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원과의 거리 및 시설예약, 사용에 대한 행정절차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정책적 초점을 공원 내부시설 개선보다는 방문할 기회 제공, 공원 홍보, 접근성 증진 등의 제고 방안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3〉 향후 개선점